

“인공암벽 오르며 무한자유 만끽하세요”

내달 6일 광주서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골핑 후원-세계대회 선발전도

전국서 4개 종별 300여명 참여

국내 암벽등반가들의 축제 ‘골핑과 함께 하는 제22회 광주광역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다음달 6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인공암벽경기장에서 열린다.

(사)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회장 최경주)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와 아웃도어 전문브랜드 (주)골핑(사장 박만영)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이 부여되는 ‘2010 코리안컵 시리즈 2차 대회’를 겸하고 있어 내로라하는 국내 스포츠클라이머들이 대거 참여한다.

남녀 초등부와 학생부, 일반부, 장년부(45세 이상) 등 4개 종별로 나뉘어 치러지며,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및 상품, 경기력향상비가 주어진다.

경기는 15m 높이의 인공암벽 코스를 사전 공개하지 않고 경기를 시작하면서 한눈에 보고 오르는 온사이트 리딩(Onsight Leading) 방식의 난이도 종목으로 치러진다. 홀드를 이용해 선수들의 오름길을 어렵게 설계한 경기벽을 정해진 시간 내에 높이 올라간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오전 9시 부분별 예선을 시작으로 결선까지 당일 펼쳐진다.

대한산악연맹 소속 각 시·도연맹에 등록된 선수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남녀 일반부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대회에는 모험과 스릴을 즐기는 산악인은 물론 박진감 넘치는 경기 모습을 보기 위해 매년 200~300명의 스포츠클라이머와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983년 4월 월출산 바닷길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001년 상무시민공원내 인공암벽이 개장하면서 전국 대회로 발돋움했다.

최경주 회장은 “스포츠클라이밍은 손가락 한마디로 온 몸을 지탱하면서 미묘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관중들도 손에 땀을 쥐는 관전의 재미를 맞출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1위를 차지한 ‘스파이더 걸’



지난 2007년 ‘광주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 출전한 ‘스파이더 걸’ 김자인 선수가 상무시민공원내 인공암벽 상단부를 험차게 오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김자인(23·고려대)을 비롯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선보일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정희식기자 who@

내달 프랑스오픈 16강 안착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패권 탈환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나달은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남자단식 3회전에서 레이튼 휴이트(33위·호주)를 3-0으로 완파하고 16강에 올랐다. 지난해 이 대회 16강에서 로빈 소더링(스웨덴)에게 탈미를 잡혀 탈락했던 나달은 토마스 벨투치(29위·브라질)와 8

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관심을 모았던 여자단식 3회전 마리아 샤라포바(13위·러시아)와 쥐스틴 에벤(23위·벨기에)의 경기는 세트스코어 1-1로 맞선 가운데 일몰로 경기가 중단돼 다음 날 재개된다. /연합뉴스

골프대회명칭 알고 보면 이렇듯

‘00오픈, △△ 챔피언십, XX 클래식, □□프로암...’

한국·미국·유럽·일본·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열리는 프로골프투어는 다양한 이름을 가진 대회로 구성된다.

당연히 타이틀 스폰서의 이름이 골프대회 맨 앞자리를 차지하지만, 뒷자리에는 오픈·챔피언십·클래식 등 기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름이 붙는다.

대회 이름은 타이틀 스폰서의 취향에 따라 붙여지기 때문에 특정 대회에는 특정 이름을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오랜 전통을 가진 대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대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대회 이름인 ‘오픈’은 통상 프로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함께 출전하는 대회라는 뜻이다. 프로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지만 초청선수 또는 예선을 통과한 아마추어 선수들

오픈 프로단체 주최...아마에 문호 개방

챔피언십 국내-메이저, 미·유럽-보편적 명칭

프로암 프로와 아마선수 성적 따로 집계

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은 ‘클래식’이다. 지금은 타이틀 스폰서들이 ‘고급스럽다’라는 의미 때문에 클래식이라는 명칭을 붙이지만, 이전에는 프로 선수들만 참가하는 대회에 붙이는 이름이었다.

‘챔피언십’의 경우 국내에서는 주로 메이저대회에 쓰이지만, 미국·유럽 등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대회 명칭이다. ‘프로암’은 프로 선수와 유명한 아마추어(가

동반 플레이를 펼치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성적을 따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회를 뜻한다.

가장 유명한 대회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이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도 오는 9월 TANI-KLPGA 프로암을 준비하고 있다.

자국 투어 출전권을 가진 선수가 아닌 해외 투어 선수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인비테이션’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연합뉴스

‘부활 샷’ 김경태 日투어 첫 우승

전미정 2연패... 日투어 통산 14승

한국 남자프로골프의 20대 기수인 김경태(24·신한금융그룹)가 일본프로골프투어(JPGTO)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경태는 30일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마골프장(파72·7159야드)에서 열린 JPGTO 다이아몬드컵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타를 줄이며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정상에 올랐다.

2008년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뛰는 김경태의 일본 대회 첫 우승으로 우승 상금은 2천400만엔(3억1300만원)을 받았다.

김경태는 이 우승으로 2007년 7월 한국프로골프투어(KGT) SBS 삼남 애플시티 오픈 이후 약 3년 만에 우승컵에 입을 맞췄다.

2007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신인왕과 상금왕에 오른 김경태는 2008년 일본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전미정(28·하이트진로그룹)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요넥스 레이디스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전미정은 30일 일본 니가카현 나가오카시 요넥스 골프장(파72·639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1언더파를 쳐 합계 9언더파 207타로 우승했다.

전미정은 우승 상금으로 1천800만엔(1억4100만원)을 받았다.

작년 JLPGA 투어에서 4번 정상에 올랐던 전미정은 올 시즌 처음 JLPGA 투어에서 우승하며 JLPGA 투어 통산 14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국은 JLPGA 투어에서 통산 98번째 우승을 기록해 통산 100승에 2승만을 남겨 뒀다. /연합뉴스



김택수(맨 왼쪽)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탁구대표팀이 30일(한국시간) 러시아에서 열린 2010세계탁구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독일을 상대로 리드 당하자 아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 ‘쿼드러플보기’ 발목

PGA인비테이션셔널 3R 공동 18위

‘탱크’ 최경주(40)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크라운 플라자 인비테이션셔널 3라운드에서 쿼드러플보기에 발목을 잡혔다.

최경주는 3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골프장(파70·7204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뽑아냈지만 쿼드러플보기 1개와 보기 1개로 4타를 줄였다.

중간합계 10언더파 200타를 찍어낸 최경주는 공동 21위에서 공동 18위로 상승했다.

공동 선두인 브라이스 몰더(미국)와 브라이언 데이비스(잉글랜드)와는 6타 차이지만 10위에는 2타밖에 뒤지지 않아 톱10 진입 가능성이 높았다.

이날 18번홀이 최경주의 발목을 잡았다. 티샷을 러프로 보내고 2번째 샷도 러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실상가상 3번째 샷을 워터 헤저드에 빠뜨리며 발타까지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탁구 독일에 저 결승행 좌절

세계선수권...여자팀은 5위 그쳐

남자 탁구 대표팀이 2010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김택수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30일(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

린 대회 챔피언십 준결승 독일과 경기에서 1-3으로 졌다.

2006년 브레멘, 2008년 광저우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결승 진출을 노렸던 남자 대표팀은 3-4위전에서 일본과 맞붙게 됐다. 여자 대표팀은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SINCE 1988

대한민국 대표 방수제

“소속되지 않습니다.”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100% 완전 방수!!

방수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방수, 지하실, 천막, 주차장, 옥상 등 방수용 오일크림

최신 4차 방수분자구조 방수방수제입니다

방수용 오일크림 방수방수제 방수방수제

062)671-1199

방수방수제 방수방수제 방수방수제

아이엘러시아

고급적 메뉴, 건강한 맛, 불꽃있는 서비스 (500석 침례)

- 점심 (11:00~14:00) : 12,000원, 15,000원, 18,000원
- 저녁 (17:00~22:00) : 15,000원, 18,000원, 22,000원
- 뷔페 (11:00~22:00) : 12,000원, 15,000원, 18,000원

062)671-1199

방수방수제 방수방수제 방수방수제